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건하게 묵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부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에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가롯 유다는 치밀하게 예수 팔 준비를 했습니다. 22:4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22:6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준비했다” <시체가 과거완료형>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갑자기’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 귀하게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하게 준비한다”라고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관심있어 하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크게 늘릴 준비도 합니다. 승진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 은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

하는 그 무엇이 정녕 우리 인생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1절에선 준비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서는 ‘찾느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  
말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열심히 “추구하다, 갈망하다” 여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한 것은 주님의 죽으신 몸만을 염두해 두고 행한 것이었지, 생명  
이 있는 몸,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진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와도 더 큰 것으로 준비하  
시는 분이세요. 생명 없는 몸만이라도 바라고 나아왔지만, 주님께서서는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5절 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찾는가?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자를!  
영똥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데에서 생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은 것들 가운데서 찾는  
일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돈일 수 있어요. 명예나 지위나 지식이기도  
하죠.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진정한 힘이에요 그것만 손에 넣  
으면 정말 살맛 날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함을 인생의 목  
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허망하게 끝나게 되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  
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지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하려고 애쓰는 중에 마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선교사는 “믿는다”는 말을 부족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어요.

잠시 동안 생각하던 원주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믿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묘사하기 위한 제일 좋은 표현은 ‘앉으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며 왜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의자 위에 앉아 계시지요. 이것은 이 의자가 선교사님을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이 남자의 대답에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위에 앉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 복음 때문에 한때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실과 그에 따른 기적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빛이 바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여전히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오늘만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일년 365일 하루 하루를 부활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믿는가, 내가 지금 이순간 믿고 있는가입니다. 코로나니까 못믿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믿고, 지금은 온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못믿고 한다면, 믿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 그 남 얘기처럼 들리던 것들이 내 얘기가 되어감을 경험하게 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준비함을 주님과 연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그 복음의 약속, 부활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앉으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웨어필드 그레이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